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한국어 지시어 교육  
자료 구성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HANSUNG  
UNIVERSITY

2020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문 학 전 공

유 교 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노정은

# 한국어 지시어 교육 자료 구성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A Study on the Composition of Instructional Materials in  
Korean Demonstratives  
-For Chinese learners-



HANSUNG  
UNIVERSITY

2019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문 학 전 공

유 교 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노정은

# 한국어 지시어 교육 자료 구성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A Study on the Composition of Instructional Materials in  
Korean Demonstratives  
-For Chinese learners-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문 학 전 공

유 교 연

유교연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9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 국 문 초 록

## 한국어 지시어 교육 자료 구성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문 학 전 공

유 교 연

지시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타나는 언어 항목이다. 한국어와 중국어에는 모두 지시어가 있으나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 지시어를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본 논문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지시어 교육 자료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지시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한국어의 지시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지시어에 대한 내용을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논문이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지시어를 배우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본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1장에서 본 연구의 목적, 필요성,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는 지시어와 지시어 교육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했다. 제2장은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으로 한·

중 지시어의 특징을 살펴보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지시어를 배울 때 난해 요소를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시어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빈도와 제시 방식을 살펴보았다.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를 선택하여 빈도와 제시 방식을 살펴, 현재 지시어 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3장에서는 교재 분석과 함께 한국어 지시어에 관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학습자 인식은 설문조사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한국어 초급자와 한국어 중·고급자를 각각 조사했다. 초급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는 상황지시 측면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중·고급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담화지시 측면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의 결과를 상세하게 요약하고 정리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지시어 교육 자료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주로 교육 자료 구성 방향과 교육 자료 구성의 실제 두 측면을 포함하여 교육 자료의 구성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위와 같은 일련의 분석 연구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지시어를 학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긴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지시어를 더 잘 배우고 잘 파악하고 제대로 규범화하도록 도울 수 있는 한국어 지시어를 사용할 것이다.

【주요어】 지시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교육 자료 구성, 도움, 파악

# 목 차

I. 서 론 .....	1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1.2.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	2
1.3. 선행연구 검토 .....	3
1.3.1. 지시어에 대한 연구 .....	3
1.3.2. 지시어 교육에 대한 연구 .....	6
II. 이론적 배경 .....	8
2.1. 지시어의 정의와 분류 .....	8
2.1.1. 한국어 지시어의 정의와 분류 .....	8
2.1.2. 중국어 지시어의 정의와 분류 .....	12
2.2. 지시어 학습의 난해 요소 .....	16
III. 교재에 나타난 지시어 제시 양상 및 학습자 인식 .....	24
3.1. 교재에 나타난 지시어 제시 양상 .....	24
3.1.1. 교재에 나타난 지시어 제시 빈도 .....	24
3.1.2. 교재에 나타난 지시어 제시 방식 .....	29
3.2. 지시어에 대한 학습자 인식 .....	33
IV.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지시어 교육 자료 구성 방안 .....	45
4.1. 교육 자료 구성 방향 .....	45
4.2. 교육 자료 구성의 실제 .....	49
V. 결 론 .....	59

참 고 문 헌 .....	61
부        록 .....	64
中 文 摘 要 .....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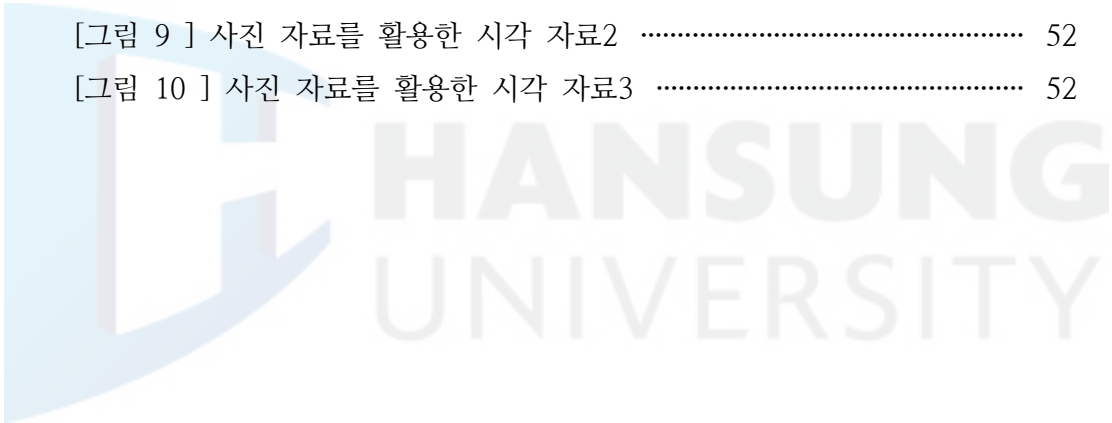


## 표 목 차

[표 1 ]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이/그/저' .....	8
[표 2 ] 한국어 지시어 연구 .....	10
[표 3 ] 중국어 지시어 정의 .....	12
[표 4 ] 성질과 용법에 따라 분류된 중국어 지시대명사 .....	15
[표 5 ] 한국어 지시 대명사 .....	19
[표 6 ] 한국어 지시 용언 .....	19
[표 7 ] 고려대학교 교재에 나타난 지시어 빈도 .....	25
[표 8 ] 서울대학교 교재에 나타난 지시어 빈도 .....	26
[표 9 ] 연세대학교 교재에 나타난 지시어 빈도 .....	27
[표 10 ] 한국어 지시표현 '이/그/저'와 중국어 지시표현 '这/那' .....	45
[표 11 ] 한국어 지시어의 활용 .....	47

## 그 립 목 차

[그림 1 ] 초급 교재에 제시된 지시어 제시 방식 .....	29
[그림 2 ] 초급 교재에 제시된 지시어 제시 방식(연습 부분) .....	30
[그림 3 ] 그림을 통한 지시어 제시 방식 .....	31
[그림 4 ] 문법 항목을 통한 지시어 제시 방식 .....	32
[그림 5 ] ‘그’를 지칭하는 상황 지시 시각 자료 .....	50
[그림 6 ] ‘저’를 지칭하는 상황 지시 시각 자료 .....	50
[그림 7 ] ‘이’를 지칭하는 상황 지시 시각 자료 .....	51
[그림 8 ] 사진 자료를 활용한 시각 자료1 .....	51
[그림 9 ] 사진 자료를 활용한 시각 자료2 .....	52
[그림 10 ] 사진 자료를 활용한 시각 자료3 .....	52





# I. 서 론

##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해 한-중 지시어를 비교하고, 차이점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지시어 교육 자료를 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시어는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언어 연구에서도 중요한 언어 항목이다. 지시어는 세상의 모든 언어에 있고 자주 사용되고 있으나 언어권에 따라 그 체계가 다르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지시 체계를 살펴보면, 한국어 지시어는 3분 체계이고 중국어의 지시어는 2분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그 차이가 명백히 존재한다. 3분 체계로 이루어지는 한국어 지시어에는 '이' '그' '저' 세 가지가 있으며, 이 세 가지는 화자와 청자의 거리에 따라 구별된다. 보통 화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지시어 '이'를 사용하고, 청자와 거리가 가깝고 화자와 거리가 멀 때 지시어 '그'를 쓴다. 화자와 청자의 거리가 모두 멀 때에는 지시어 '저'를 사용한다.

3분 체계로 이루어지는 한국어 지시어와는 달리 중국어 지시어는 '这' '那'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화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지시어 '这'를 쓰고 화자와 거리가 멀 때 지시어 '那'를 사용한다. 중국어에서는 '那'로 사용되는 것이 한국어에서는 '그'와 '저'로 나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입장에서는 지시어의 이해와 사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 이외에도 한국어 지시어는 활용을 한다는 특징이 있으나 중국어는 활용을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교착어인 한국어와 고립어인 한국어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이다.

지시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언어의 경제성 때문이며, 지시어 사용을 통해 응집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지시어는 다양한 상황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도 모두 사용 빈도가 높다.

그러나 지시어의 체계가 언어에 따라 다르다면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중 지시어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자세히 살펴 지시어 학습의 난해 요소를 확인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 교재에서 지시어가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 문제점을 도출하고, 학습자들이 지시어를 적절히 이해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지시어를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자료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1.2.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지시어와 중국어 지시어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자료를 구성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필요성, 연구 범위 및 방법을 기술할 것이다. 선행 연구 검토 부분에서는 지시어와 지시어 교육으로 나누어 검토를 해 나갈 것이다.

2장에서는 우선 한국어 지시어와 중국어 지시어의 비교 분석을 통해 그 특징점을 파악하고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

3장에서는 교재 분석을 통해 지시어 자료 제시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자료 제시양상은 한국어교육 교재 세 종에 제시된 양상을 분석하여 그 특징점을 찾도록 할 것이다. 한국어교육 교재는 고려대학교의 『재미있는 한국어』와 서울대학교의 『서울대 한국어』, 연세대학교의 『연세한국어』에 제시된 양상을 분석하여 특징점을 모색하고 제시 양상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할 것이다.

또한 학습자들이 지시어를 잘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지시어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제시 양상의 문제점과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4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지시어 자료 구성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자료 구성의 방향과 자료 구성의 실재를 제시하여 구체화된 자료 구성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5장에서는 본고를 요약, 마무리하며 본 논문의 효용성과 한계에 대해 논할 것이다.

### 1.3. 선행연구 검토

선행 연구 검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지시어에 관한 연구로 한국어 지시어 및 중국어 지시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지시어 교육에 관한 연구로 외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지시어 교육에 대한 연구 및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지시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 1.3.1. 지시어에 대한 연구

지시어와 관련한 선행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한국어 지시표현 '이/그/저'에 관한 연구이고, 둘째, 중국어 지시표현 '这, 那'에 관한 연구이며, 셋째, 한국어와 중국어의 지시어에 대한 대조 연구이다.

먼저 한국어 지시표현 '이/그/저'에 관한 연구된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경모(2008)는 지시어 연구 중 대표적인 연구로 말뭉치 언어학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말과 문장에 나오는 '이/그/저'를 귀납해서 실증적인 사용 상황과 용법 그리고 분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시어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거시적으로 말뭉치를 상세하게 분류하였고 지시어 '이/그/저' 간, 다른 품사 간(지시대명사, 지시부사, 지시관형사 등), 그리고 구어와 문어 간 기능 차이를 각각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이전의 말뭉치의 뒷받침이 없이 개별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사용되는 지시대명사에 대한 해석을 회피했던 한계를 해결하고 말뭉치를 과학적으로 해석해 다양한 말과 문장에 흩어져 있는 지시어의 사용을 구체화하였다. 그리하여 이전의 연구가 남긴 난제를 해결하였고 지시어 '이/그/저' 간, 지시대명사와 지시관형사 그리고 지시부사 간, 구어와 문어 간의 사용 분포와 기능적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지시어 '이/그/저'의 체계를 재정립하였다.

서경희·홍종화(1999)는 담화 과정에서 청자의 참여를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이/그/저'가 구별된다는 점을 밝혔다. 이 논의에서 '그'와 '저기'의 담

화표지의 용법을 언급했지만 그들의 다양한 담화적 기능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기갑(1994)은 담화에서 '그러하-'의 지시와 대응, 그리고 지시어끼리의 결합 관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특히 '그러하-'는 관형화 되어 지시적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해석하고, 이것은 일종의 문법화 현상으로 파악될 만하다고 하였다.

김일웅(1982)은 '이/그/저'의 의미기능을 발화 현장에 존재하는 대상을 지시하는 '현장지시', 실제의 대상이나 그에 대한 언어 문맥은 없지만 화자와 청자의 머릿속에서 공유하고 있는 대상을 지시하는 '개념 지시', 언어 문맥에서 이야기된 대상을 지시하는 '문맥지시'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양용준(2018)은 이런 수많은 지시표현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지시어라 할 수 있는 it, that, this을 중심으로 영어와 한국어의 지시어에 대한 그 쓰임과 용법이 어떻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황선영(2019)은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맥적 지시어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지시는 담화 내의 표현과 그 언어 표현이 가리키는 것과의 연결 관계를 말하고 이를 잘 활용하여야 응집성 높은 글을 쓸 수 있다고 보고 문맥적 지시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어 지시표현 '这, 那'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로 진행되고 있고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曹秀玲(2000)는 '这'는 '那'보다 사용 빈도가 훨씬 높고 이것은 인간의 인지적 관점에서 나온 가장 좋은 해석이다. '这'는 긍정적인 것과 관련이 있고, '那'는 부정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은 인간 인지에 대해 더욱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蒋华(2004)는 포괄적인 분석을 하였는데, 아이들이 '这/那'의 용법을 배우면서 '这/那'의 사용은 항상 객관성과 감정 요소를 수반한다고 하였다.

중국어 지시어와 한국어 지시어를 함께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梁敬美(2002)는 20명의 한국과 중국 사람의 담화 녹음을 전사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문장 이상의 단위에서 '这/那'의 기능을 고찰하였고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은 지시어의 지시, 표현 찾기, 말 채우기 등 사용 방법에서 전혀 다른 사용 비율을 보이는데, 이것은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들은 중국어를

사용할 때 모국어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姜美子(2003)는 지시 기능과 대칭 기능, 그리고 제로형의 면에서 '이/그/저'와 '这/那'를 비교하였다. 한국어 지시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더욱 섬세하고 복잡하고 위치에서 더욱 원활함을 나타낸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대칭(代称) 기능의 측면에서 제한을 많이 받는다.

김정은(2005)은 번역의 차원에서 한국어 지시표현 '이/그/저'와 중국어 지시표현 '这/那'를 번역할 때 서로 맞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원인을 분석하였다. 宋晓辉(2006)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지시어의 의미기능, 화용적 특성, 사용 빈도 등 측면의 차이성을 분석하고 또한 이런 차이성 뒤에 있는 언어논리상의 공통성을 밝히려고 노력을 하였다. 李晓燕(2009)는 텍스트 언어학의 차원에서 한·중 지시어가 텍스트에서의 기능인 선행 지시, 후행 지시 그리고 영(zero)지시를 비교하여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였다.

장목비(2012)는 대조 분석을 통해서 한·중 지시어의 통사적인 특성과 용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어 지시어와 중국어 지시어는 통사적 특성과 용법에서 차이점이 나타나므로 이에 대해서 대조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사물, 장소, 시간, 상태를 나타내는 한·중 지시어의 사용 방법에 중점을 두고자 했다.

이상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지시표현 '이/그/저'에 관한 연구, 중국어 지시어 '这/那'에 관한 연구, 그리고 한국어와 중국어의 지시어에 대한 대조 연구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지시표현 '이, 그, 저'를 학습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논의를 연구하기로 한다. 그래서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지시어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지시어 교육에 대한 연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1.3.2. 지시어 교육에 대한 연구

지시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지시어 교육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지시어에 관한 교육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박영환(2007)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의 지시어를 교육할 때 고려해야 할 문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지시어의 의미와 유형을 논의하고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이후의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박선희(2008)는 한국어 지시어에 대한 교수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인식 조성을 통해 한국어 지시표현이 가진 의미 기능을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어 지시표현이 가지는 의미 기능을 점검하며, 언어 인식 활성화를 통해 한국어 지시표현의 의미 기능에 대한 교육 방안을 탐색하였다.

조신(2011)은 대조 분석을 바탕으로 한·중 지시어에 대한 사전 의미, 구성 체계, 기능, 그리고 용법에 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현재 한국어 교재에서의 지시표현 '이/그/저'에 대한 교육 현황의 분석을 통해 교육을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에 두 언어의 대조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지시표현 '이/그/저'와 중국어 지시표현 '这/那'에 대한 대비 분석을 통해 한국어 지시어의 학습에 효과적인 교육 방안과 교재 모형을 제시하였다.

Zhao Xiaoyan(2013)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지시표현 '이, 그, 저'에 대해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정확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지시표현 '이, 그, 저'와 중국어 지시표현 '这, 那'에 관해 대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중 지시어에 대한 대조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모국어 간섭을 고려하여 사용 오류를 예측하고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지시표현 '이, 그, 저'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지시표현과 중국어 지시표현에 관한 대조 분석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지시표현 '이, 그, 저'의 교수 방안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왕학웅(2014)은 중·고급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지시어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중국어 지시어 체계의 대조언어학적 연구, 그리고 한국어 지시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범한 오류 양상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지시표현의 교육 내용과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안광미(2015)는 중국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한국어 지시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방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지시표현 체계를 정리하고, 체계에 따라 지시표현 체계의 분류 변수를 비교해 보고, 두 언어를 수식관계, 대응형식, 그리고 문장에서의 구성방식 등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교육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국과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를 선택해서 교수-활동 내용을 비교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지시어에 대한 교육 방안 연구를 살펴보았다. 학자들은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지시어 교육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지만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지시표현 교육 자료 제시, 자료 구성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 교육 자료 구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Ⅱ.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한국어 지시어의 특징과 중국어 지시어의 특징을 살펴보고, 한중 지시어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 중국인 학습자에게 학습시 난해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2.1. 한·중 지시어의 정의와 분류

#### 2.1.1. 한국어 지시어의 정의와 분류

한국어 지시어는 화자, 청자와의 거리에 따라 각기 다른 지시어를 사용한다. 화자와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 청자와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 그리고 대화 쌍방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따라 사용하는 지시어가 다르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논의 대상인 한국어 지시표현 '이/그/저'에 관한 사전에 등재된 의미는 다음의 [표 1]과 같이 살펴보았다. 한국어 사전으로는 국립국어원이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하였다.

[표 1]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이/그/저'

	사전 풀이
이	①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②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그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저	말하는 이와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김일웅(1982)은 지시어의 기능을 현장 지시, 조용 지시, 개념 지시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현장 지시는 지시 대상이 화자와 청자의 물리적인 거리에 따라 발화 현장 안에 존재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조용 지시는 지시 대상이 화자와 청자가 참여하고 있는 담화에서 이야기되는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 개념지시는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개념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장경희(1980)는 지시의 층위를 실재적 지시, 기호적 지시, 상념적 지시로 제시하였다. 실재적 지시는 발화 현장에 있는 대상에 대한 지시를 나타내며, 지시 대상이 담화 상황에서 언급되었을 때 기호적 지시라고 보았으며, 상념적 지시는 발화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념에 존재하는 소재나 개념이라고 보았다. 장경희(2002, 2004)는 상황 지시와 현장 지시로 실재적 지시를 설명하기도 하였으며 기호적 지시를 언어 맥락 지시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민경모(2008)는 한국어 지시표현 '이/그/저'와 후접 형식의 관계를 통해 지시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이/그/저'+의존명사/명사

'관형사+의존명사' 이러한 구조는 지시어가 아니고 지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명사단어가 하나의 품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관형사+의존명사'의 형태를 갖는 구조의 경우, 관형사 '이/그/저'만 지시어라고 할 수 있다.

2) '이/그/저' 독립된 단위로 사용

'이/그/저'에서 감탄사와 관형사를 제외한 대명사를 포함한다.

3) '이/그/저'+'-리-', '-리-'

이런 형태는 동사나 형용사로 쓰일 수 있고, 어미와 고정적으로 결합하여 다른 품사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결 어미와의 고정적으로 결합된 접속부사 또는 종결 어미와의 고정적으로 결합된 감탄사라고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이/그/저'+접사/조사

'이/그/저'와 접사 또는 조사가 고정적으로 결합되어 사용될 경우, 대부분 부사나 관형사이며 대명사 또는 명사인 경우도 있다.

민경모(2008)는 지시표현의 기능이 직시와 참고라는 것을 밝히고 연구용 말뭉치에 나온 지시어의 형태, 빈도, 그리고 용법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말뭉치 분석 결과를 통해 지시 관형사, 지시 부사, 지시 대명사, 그리고 지시 용언이 어떤 형태로 무슨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규명하였다. 지시표현 '이/그/저'의 사용 양상을 전체적으로 조명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다음 [표 2]과 같이 제시하겠다.

[표 2] 한국어 지시어 연구 (민경모 2008: 24-30)

한국어의 지시어	지시관형사	이, 그, 저	
	지시대명사	이, 그, 저 이것, 그것, 저것 여기, 거기, 저기 이분, 그분, 저분 이쪽, 그쪽, 저쪽	
	지시용언	지시동사	이러다, 그러다, 저러다 이리하다, 그리하다, 저리하다
		지시형용사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이러하다, 그리하다, 저러하다

(1) 가. (화병이 화자 가까이에서 있고 청자도 그걸 쳐다보고 있음.) 이 화병 언제?

나. 영희가 이번 시험에 일등을 했어.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

다. 언니, 그 여자 이름이 뭐지? 작년에 해수욕장에서 만난 그 여자 말이야.

이승후(1991)는 한국어 지시표현 '이, 그, 저'의 의의 기능에 대해서 인물 지시, 사물 지시, 시간 지시, 그리고 방향 지시 네 가지로 나눠서 분석하였다. 오선경(1996)은 '이, 그, 저'를 포함 어휘에서 인칭 지시, 사물 지시, 시간 지시, 장소 지시, 방향 지시, 그리고 양상 지시 여섯 가지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오경숙(1997)은 '대용'과 '조용'은 근본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일치하나 다만 그 강조점이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면서 '대용'은 어떤 언어 형식이나 내용을 '대신하다'는 점에 주목하는 개념이고, '조용'은 선행 표현과 조용 어와의 지시적 관련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서 대용이든 조용이든 선행하는 언어표현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선행 표현의 의미 내용, 즉 선행 표현이 나타내는 정보나 명제를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둘 중에 선행 표현과 지시적 관련성이 있는 조용을 선택하고 직시와 조용을 지시의 하위 범주를 선정하였다.

박선희(2007)는 지시 층위를 구분하였는데 화시적 지시, 문맥적 지시, 상념적 지시가 있다고 보았다. 화시적 지시는 실재적 지시, 현장 지시로서의 개념이며, 문맥적 지시는 조용 지시, 언어 맥락적 지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상념적 지시는 개념 지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고 이러한 지시의 기능을 가진 지시어를 한국어 학습자가 어떻게 습득해 나가는지를 연구하였다.

채숙희(2018)는 지시대명사와 지시관형사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어교재의 지시표현 제시 양상을 전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시표현과 관련된 실제적인 교재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교재에서 명시적으로 목표항목으로 설정된 지시표현에 대한 검토 이외에, 본문, 듣기 지문, 그리고 과제 등 한국어교재 내의 다양한 텍스트에 쓰인 지시어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한국어 모어화자 자료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지시표현의 사용방법과 관련해서는 화맥지시를 위주로 지시어의 사용 방법을 제시하고 다른 사용 방법에 대한 고려는 다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한국어 지시어의 정의와 분류를 정리하였다. 한국어 지시어는 지시관형사, 지시대명사, 지시용언의 형태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그, 저’는 기본적으로 화청자의 거리에 따라 나뉘나 용법은 장경희(1980)의 연구에서처럼 여러 용법으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지시어를 지시관형사, 지시대명사, 지시용언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지시어를 학습할 때 어떠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 일지에 대해 논의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지시의 성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고, 현장에서 화청자의 물리적 거리에 의해 지시대상을 지칭하는 것을 상황 지시로 지칭하고,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맥적 지시를 담화 지시로 지칭하여 본고에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 2.1.2. 중국어 지시어의 정의와 분류

중국에서 지시어에 대한 정의는 통일된 규정이 아직 없다. 학자들마다 연구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먼저 중국어에서 지칭하는 지시어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어에서도 지시어의 정의는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는데, 중국어 지시어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는 다음 [표 3]와 같다.

[표 3] 중국어 지시어의 정의

번호	정의	출처
1	‘凡词用来特别指出人物或其德性，或其行为的方式，德性的程度等，叫做指示代词。’ ‘모든 단어는 인물이나 그 덕성, 또는 그 행위의 방식, 덕행의 정도 등에 특별히 지적하는데 사용되며, 이를 지시대명사라고 한다.’	王力 《中国现代语法》 (1938/1985:223)
2	‘指示代词是用来指点，区别人或事物的代词。’ ‘지시대명사는 사람 또는 사물을 가리키고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명사이다.’	语法编写组 《语法》 (1978:23页)

3	'指示区别人, 事物, 情况的代词叫指示代词.' '사람, 사물, 상황을 구별하도록 지시하는 대명사를 지시대명사라고 한다.'	张静 《现代汉语》 (1988:306页)
4	'指称或区别人, 物, 情况的叫指示代词.' '사람, 물건, 상황을 지칭하거나 구별하는 것을 지시대명사라고 한다.'	黄伯荣, 廖序东 《现代汉语》 (1991:下册27页)
5	'指示代词是主要用来指示的那些代词, 如'这', '那'及由它们构成的那些代词, 还包括'本', '每', '某', '各', '该', '其余', '其他'等。指示代词也可以用于区别和或代替.' '지시대명사는 주로 지시용으로 사용되는 대명사이다. '这' '那'와 같은 그것들로 구성된 대명사이며 '本', '每', '某', '各', '该', '其余', '其他' 등이 포함된다. 지시대명사도 구별하거나 대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张斌 《现代汉语实词》 (2000:271页)

'这'와 '那'는 중국어 지시대명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며, 다른 중국어 지시대명사는 모두 그것들에서 파생된다. 중국어 지시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할 수 있으며, 문장의 명사, 동사, 형용사 또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를 대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지시대명사는 '这'와 '那'이다. 일반적으로 '这'는 근지(近指), '那'는 원지(远指)라고 여긴다. 예를 들어, 王力(1985)는 '这'는 항상 가까운 인물을 가리키며, '那'는 항상 멀리 있는 인물을 말한다. 吕叔湘(1985), 朱德熙(1982)는 지시대명사는 또한 지칭작용이 있으며, 근지(近指)에서는 '这'를 사용하고 원지(远指)에서는 '那'를 사용한다. 다양한 유형의 〈현대 중국어〉 교재는, 대부분 위에서 서술한 것과 대략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邢福义(1991) 黄伯荣, 廖序东(2001), 胡裕树(1991), 吴启主(1995) 등이 있다. 중국의 원근지(远近指) 분류에 의한 문법적 측면의 용법은 주로 다음과 같다.

黎锦熙(1998)는 지시대명사를 지시형용사가 포함된 개념으로 보았다. 동시에 '这'를 함유하고 있는 단어를 근칭(近称)<sup>1)</sup>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这, 这个, 这些, 这样, 这里, 这儿' 등 있다. '那'를 함유한 단어를 원칭(远称)<sup>2)</sup>으로 부른다. 예를 들어, '那, 那个, 那些, 那样, 那里' 등 있다. 그는 또

1) 근칭(近称)은 화자와 거리가 가까운 범위이다.

한 지시형용사를 근지(近指), 원지(远指), 승전지(承前指), 부정지(不定指) 또는 불특정 지시대명사(虚指) 등으로 나눈다.

高名凯(1948)는 중국어의 구조로 설명할 때 지시대명사와 지시형용사를 지시하는 것은 각각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어의 지시어는 근지(近指)나 원지(远指)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王力(1990)는 지시대명사에는 이분법(二分法)과 삼분법(三分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어떤 언어에서의 지시대명사는 근지(近指)와 원지(远指) 두 종류로 나뉜다. 다른 어떤 언어는 근지(近指)와 원지(远指) 외에도, 제3의 지시대명사가 있는데, 바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의미로서, 어느 일정한 거리의 인물을 가리킨다. 吕叔湘은 또한 대명사를 지시하는 이분법(二分法)과 삼분법(三分法)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杨树达 《高等国文法》(1930)는 지시대명사를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지시부사로 구분하였다. 지시대명사를 지시 원근 거리에 따라서 근칭(近称)이랑 원칭(远称)으로 구분하였다.

吕叔湘(1940, 1985, 1990)의 견해는 '这/那'의 기능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는 《中国文法要略》에서, 대부분의 지시대명사에는 단순지시와 지시격(指示格) 대칭의 두 가지 용법이 있다고 하였다. 80년대에는 전문 저서인 《近代汉语指代词》에서, '这/那' 뒤에 명사가 있을 때, 그 기능은 지시이고, '这/那' 뒤에 명사가 없을 때, 그 기능은 대칭(물론 지시 기능도 겸하다)이라고 제기하였다. 또한 '这/那'의 인수 역할을 제시하였다. 그는 90년대에 발표된 《指示代词的二分法和三分法》에서, '这/那'의 역할을 모두 지시, 구별과 대체의 3대분류로 분류했다. 또한 지시는 근본이며, 대체를 겸할 수도 있고, 대체를 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구별을 겸할 수도 있고 구별을 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성질과 용법에 따라 분류된 중국어 지시대명사는 다음 [표 4]과 같다.

---

2) 원칭(远称)은 화자와 거리가 먼 범위이다.

[표 4] 성질과 용법에 따라 분류된 중국어 지시대명사

汉语指示代词 중국어 지시대명사	近指 근지	远指 원지
指示或称代人、事物 사람, 사물을 지시하거나 지칭한다	这、这个、这些 이, 이것, 이것들	那、那个、那些 그, 그것, 그것들 저, 저것, 저것들
称代处所 장소를 지칭한다	这儿、这里 여기	那儿、那里 거기 저기
称代时间 시간을 지칭한다	这会儿 이때	那会儿 그때
指示或称代性质、方式、 程度 성질, 방식, 정도를 지시하 거나 지칭한다	这么、这样、这么样 이러한, 이렇다, 이렇게	那么、那样、那么样 그러한, 그렇다, 그렇게 저러한, 저렇다, 저렇게

위의 표에 따르면, 중국어 지시대명사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사람, 사물을 지시하거나 지칭한다.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사람이나 사물을 지시할 때, 중국어 지시어 ‘这, 这个, 这些’를 쓰고 먼 사람이나 사물을 지시할 때 중국어 지시어 ‘那, 那个, 那些’를 쓴다. 둘째는 장소를 지칭한다.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장소를 지시할 때, 중국어 지시어 ‘这里, 这儿’를 사용하고 먼 장소를 지시할 때 중국어 지시어 ‘那里, 那儿’를 사용한다. 셋째는 시간을 지칭한다.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시간을 지시할 때, 중국어 지시어 ‘这会儿’를 쓰고 먼 시간을 지시할 때 중국어 지시어 ‘那会儿’를 쓴다. 넷째는 성질, 방식, 정도를 지시하거나 지칭한다.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성질, 방식, 정도를 지시할 때, 중국어 지시어 ‘这么, 这样, 这么样’를 사용하고 먼 성질, 방식, 정도를 지시할 때 중국어 지시어 ‘那么, 那样, 那么样’를 사용한다.

지금까지 중국어 지시어를 지시대명사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중국어 지시어는 근칭과 원칭에 따라 나뉘는 것이 일반적임을 살펴보았다. 또한 중국어는 고립어이므로 한국어 지시어와 같이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시용언과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지시어에 대한 한국어와 중국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분체제와 삼분체제로 각기 다른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며, 활용 여부가 다르다는 특징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 2.2. 지시어 학습의 난해 요소

위에서는 한국어 지시어와 중국어 지시어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지시어의 차이점을 밝혀 지시어 학습의 난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한다. 지시어 학습의 난해 요소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언어 차이로 인한 문제, 한국어와 중국어의 지시어 차이로 인한 문제, 한국어 학습 시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지시어 학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로 나누어 지시어 학습 난해 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한국어와 중국어의 언어 차이

우선 한국어와 중국어 언어 차이 측면에서 분석하도록 한다.

한국어는 교착어이고 중국어는 고립어이다. 교착어와 고립어가 차이점이므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교착어의 성격을 지닌 한국어를 학습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국어로 대표되는 고립어는 각각 독립적이고 완전한 의미를 지닌 단어로 단순한 중첩을 통해 문장을 구성한다. 중국어에서는 각각의 한자가 독립적인 발음과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단일 문자의 중첩된 조합을 통해 아무리 복잡한 문장이라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 형태론은 그것을 고립어로 정의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고립된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교착어는 조사, 어미가 붙어 다양한 꼴바꿈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다음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의 '이러한'과 '이렇게'를 보면 중국어에서는 다 '这样'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그런/그러한'과 '그렇게'는 중국어에서는 다 '那样'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입장에서 언제 '이런'을 써야 하고, 언제 '이렇게'를 써야 하는지 잘 판단히



서지 않게 된다.

她从来没有这样奢侈过。

그는 여태 이렇게 사치한 적이 없었다.

以后这样的奢侈最好不要去做。

이런 사치는 앞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위의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어의 ‘这样’이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되고, ‘이런’도 되기 때문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 (2) 한국어와 중국어의 지시어의 체계 차이

그 다음에 한국어 지시어와 중국어 지시어 차이 측면에서 분석하도록 한다. 여시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체계적인 구조 측면에서 보면 중국어 지시어는 '这/那' 2분 체계이고 한국어 지시어는 '이/그/저' 3분 체계이다. 중국어 지시어에서 '这'는 근거리 지시표현이고 '那'는 원거리 지시표현이다. 화자와 가까이 있으면 '这'로 지시하고 반대로 화자와 멀리 있으면 '那'로 지시한다. 중국어 지시어에서도 시간 거리와 공간 거리를 모두 가리킬 수 있다. 중국어 지시어 체계를 구분하는 기준점은 바로 화자의 위치이다. 그렇지만 한국어 지시어 체계는 화자 뿐만 아니라 화자와 청자 모두가 기준점이 된다. 즉 지시된 사물은 화자와 거리가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에 '이'를 쓰고, 청자와 거리가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에 '그'를 쓰고, 화자와 청자 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저'를 쓴다. 그러므로 정확한 구별이 어렵다.

중국어 지시어 상황:

- (a) 这是我的房间。(여기가 내 방이다.)
- (b) 那是老师。(그분이 선생님이다./저분이 선생님이다.)
- (c) 那时我还很年轻。(그때 나는 아직 젊었다.)

위의 예문에서 살펴보면 (a)에서 '房间'은 화자와 근거리에 지시대상이 있기 때문에 근거리 지시어 '这'로 사용을 했으며, 한국어에서는 '여기'를 사용한다. (b)에서 '老师'는 화자와 원거리에 지시대상이 있기 때문에 원거리 지시어 '那'를 사용하였다. 이런 상황 한국어에서는 '그분'도 쓸 수 있고 '저분'도 쓸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이 한국어 학습을 어렵게 만드는 지점이 된다. 중국인 학습자 입장에서는 '那' 하나로 인식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c)에서 '那时'는 오래 전부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원거리 지시표현 '那'를 사용하였다. 이 문장에서는 한국어로 '그때'를 사용된다.

한국어 지시어 상황:

화자 A: 이것(C)은 무엇입니까?

화자 B: 그것(C)은 사전입니다.

위의 한국어 지시어 예문을 보면 B가 대답할 때에 '그'를 사용했다. '그'의 기본 기능은 자신에게 상대적으로 멀고 청자에게 가까운 사물을 지시하는 지시어이다. 그래서 B는 사전 C가 A에게 더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였다.

두 번째는 한국어 지시어는 지시 대명사 이외에 지시 용언이 있는데 이 경우 활용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지시어를 이해하기 힘들다.

한국어 지시 대명사에 대하여 아래 [표 5]와 같이 정리하도록 한다.

[표 5] 한국어 지시 대명사

화자와 가까이 있는 경우	청자와 가까이 있는 경우	화자와 청자로부터 모두 멀리 있는 경우
이	그	저
이것(이거)	그것(그거)	저것(저거)
이쪽	그쪽	저쪽
여기	거기	저기
이곳	그곳	저곳
이 책	그 책	저 책

1. 이것은 책이에요.
2. 그거는 커피예요.
3. 저것은 핸드폰이에요.
4. 이 책은 한국어 책이에요.
5. 그 시장은 야시장이예요.
6.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위의 예문 중에서는 '이것' '그거' '저것' '이 책' '그 시장' 그리고 '저 사람' 다 단순한 대명사와 관형사이다. 형태 변화가 없는 불변어이므로 어렵지 않다.

한국어 지시 형용사에 대한 정리를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한국어 지시 용언

지시 용언	이러하다	이러한
		이런

	그러하다	이렇게
		그러한
		그런
		그렇게
	저러하다	저러한
		저런
		저렇게

지시 용언에는 '이러한, 그러한, 저러한' '이런, 그런, 저런'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등이 있다. 지시 용언이 너무 많고 형태 변화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사용하기가 어렵다. 선택해서 사용할 때는 헷갈릴 수도 있다.

지시 용언은 교착어의 성격인 한국어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고립어의 중국어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 그런데 교착어와 고립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기에 거리 개념이 더해져서 복합적으로 사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 입장에서는 지시어 사용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또한 거리 개념에 따른 구분, 활용 여부가 복합적으로 얹혀 있을 경우 학습자들은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 (3) 한국어 학습의 어려움이 지시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한국어와 중국어의 언어 차이, 또는 지시어의 체계 차이는 아니지만 한국어 학습을 할 때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지시어 학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언어 측면에서 보면 문장이 너무 길어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긴 문장은 보통 짧은 문장이 몇 개씩이 결합되어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다. 그 중에는 안은 문장과 이어진 문장이 복잡하게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 학습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아래 예문은 지시 표현이 사용된 예문 중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들이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은 담화 지시 상황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안은 문장과 이어진 문장이 함께 제시되는 상황에서 지시어가 바로 앞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느껴지게 된다.

- (a) 그런 선물을 받으면 이렇게 비싼 선물을 한 의도가 뭘까, 다음에 나도 상대방에게 그 정도의 선물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3급)
- (b) 아무런 대꾸도 없이 내 컴퓨터만 조용히 들여다보던 상담원은 '이거 확장자가 지워져서 그러는 건데요, 파일 이름 뒤에 확장자를 넣기만 하면 돼요.'라고 말했다. (4급)

위의 문장들은 길이가 너무 길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예문이다<sup>3)</sup>. (a) 예문은 '그런 선물을 받으면 이렇게 비싼 선물을 한 의도가 뭘까'에서 '그런 선물'의 의미와 '이렇게'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다. (b) 예문에서도 '이거'가 사용된 문장이 안은 문장과 이어진 문장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의미 파악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또한 언어 학습 측면에서 보면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모르는 고급 단어가 있을 경우 공교롭게도 이 모르는 단어는 또 문장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이 단어를 모른다면, 전체 문장의 뜻을 전혀 이해 할 수 없다. 어려운 단어가 있기 때문에 지시어가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지 의미 파악을 잘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제 측면에서 보면 문장에서 다루는 주제가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문장 전체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지시어가 문장 중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미 파악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3) 여기에 사용된 예문은 『재미있는 한국어』에 제시된 예시임을 밝힌다.

- (c) 이렇게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6급)
- (d) 제가 외국인이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양쪽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지내는 것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요. (6급)

(c) 에 제시된 시위, 국민들의 요구, (d)의 체제 유지 등에 대한 주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용 파악 및 지시어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그 의미 파악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시어 중복 측면에서 보면 지시어가 여러 가지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한 문장에서 지시어가 몇 개를 같이 나오는데, 지시어가 이 문장 안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 (e) 상담원에게 자초지종도 설명하지 않고 다짜고짜 '저, 이것 좀 어떻게 해 주세요. 이 파일이 절대로 안 열려요. 저 이거 날아가면 죽어요. 제발 저 좀 살려 주세요.'라는 말만 반복했다. (4급)
- (f) 물론 대중문화의 속성이 그렇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남녀 주인공의 애정을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한다거나 그렇게 인위적으로 자극적인 상황을 설정하니까 사람들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6급)

위의 두 예문은 다 지시어가 여러 가지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e) 예문에서는 지시어 '이것, 이,' 등 여러 지시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f)에서는 지시어가 중복되면서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어와 중국어의 지시어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으며 지시어 학습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교재에 지시어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지시어 학습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것이다. 아울러, 학습자 인식을 함께 조사하여 학습자들이 지시어가 사용된 문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 Ⅲ. 교재에 나타난 지시어 제시 양상 및 학습자 인식

### 3.1. 교재에 나타난 지시어 제시 양상

지시어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많은 언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시어는 문장을 응집성 있게 연결할 수 있는 장치이므로 이 지시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문장을 잘 연결시키는 데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재에 지시 표현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여 지시어 학습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3.1.1. 교재에 나타난 지시어 빈도

본 절에서는 교재에 지시어가 제시되는 빈도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앞에서 지시어는 크게 지시관형사, 지시대명사, 지시용언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특정 급에서 지시관형사가 많이 등장한다면 지시관형사는 특정 급에서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교재에 나타난 지시어 빈도를 확인해 봄으로써 지시어 학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이 된 교재는 총 3종의 한국어 교재로 〈재미있는 한국어〉, 〈서울대 한국어〉, 〈연세한국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교재는 한국어 교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이므로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1급에서 6급까지 지시어가 얼마나 많이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지시어 분포는 교재의 대화, 문법에서 사용된 예문에서 살펴보았는데, 대화는 그 단원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핵심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이며, 문법에서 사용된 예문 역시 학습시 중요한 부분이므로 대화, 문법에서 사용된 예문을 대상으로 지시어 빈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시어는 지시관형사, 지시대명사, 지시용언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고려대학교 한국어 교재 〈재미있는 한국어〉 1급에서 6급까지 대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분석 대상은 모두 교재에서 대화, 문법에 사용된 예문 중 '이, 그, 저'가 제시되어 있는 문장으로 그 분포는 아래 [표 7] [표 8] [표 9]과 같다.

[표 7] 고려대학교 교재에 나타난 지시어 빈도

급별	한국어의 지시어	횟수
1급	지시관형사	14
	지시대명사	26
	지시용언	-
2급	지시관형사	52
	지시대명사	83
	지시용언	28
3급	지시관형사	50
	지시대명사	66
	지시용언	108
4급	지시관형사	64
	지시대명사	88
	지시용언	145
5급	지시관형사	14
	지시대명사	17
	지시용언	49
6급	지시관형사	33

	지시대명사	38
	지시용언	117

[표 7]을 보면 1급과 2급에서는 지시 대명사의 빈도가 높은 반면, 3급부터는 지시대명사의 비중보다 지시 용언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 서울대학교 교재에 나타난 지시어 빈도

급별	한국어의 지시어	횟수
1급	지시관형사	7
	지시대명사	31
	지시용언	12
2급	지시관형사	18
	지시대명사	29
	지시용언	34
3급	지시관형사	36
	지시대명사	65
	지시용언	68
4급	지시관형사	46
	지시대명사	36
	지시용언	82
5급	지시관형사	304
	지시대명사	83

	지시용언	12
6급	지시관형사	121
	지시대명사	38
	지시용언	3

서울대학교 교재의 경우 1급에서는 지시대명사의 비중이 높고, 2,3급에서는 지시관형사와 지시용언의 비중이 함께 높게 나타났으며, 4급에서는 지시용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 교재의 경우 고급에서는 대화의 제시 비중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시어 노출이 적게 나타났다.

[표 9] 연세대학교 교재에 나타난 지시어 빈도

급별	한국어의 지시어	횟수
1급	지시관형사	29
	지시대명사	55
	지시용언	11
2급	지시관형사	44
	지시대명사	37
	지시용언	16
3급	지시관형사	96
	지시대명사	58
	지시용언	58
4급	지시관형사	103
	지시대명사	62

	지시용언	157
5급	지시관형사	35
	지시대명사	30
	지시용언	70
6급	지시관형사	65
	지시대명사	48
	지시용언	76

위의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 한국어 교재의 지시어에 대한 급별 분석 분포를 정리하고 살펴보았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초급 교재의 경우에는 지시관형사와 지시대명사의 비중이 높고, 지시 용언의 비중이 낮다. 중·고급 교재의 경우에는 반대로 지시관형사와 지시대명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지시 용언의 비중이 높아진다. 이것은 같은 지시어라고 하더라도 급에 따라서 사용 비중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과 상황에 따라 급별로 한국어 지시어를 다르게 학습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재의 고급 5급과 6급은 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겠다.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고급 교재에는 대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지만 서울대학교의 고급 교재에는 대화 내용이 하나도 없고 어휘와 문법의 내용만 있다. 서울대학교 한국어 고급 교재에는 학습자들의 듣기, 말하기, 읽기, 그리고 쓰기 활동 부분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대화 내용이 없어서 지시용언이 나타나는 빈도가 다른 학교의 교재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초급에서는 지시관형사와 지시대명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아 상황 지시가 주를 이루고 있고, 중·고급에서는 담화 지시의 비중이 더 높게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시어를 교육할 때 상황 지시에 대한 내용과 담화 지시에 대한 내용으로 구별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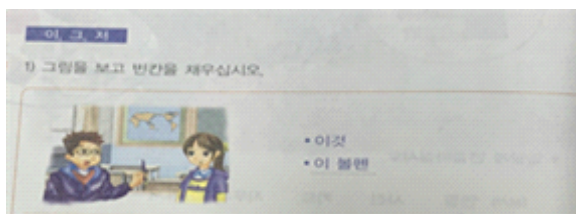
### 3.1.2. 교재에 나타난 지시어 제시 방식

이 장에서는 지시어가 교재에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1.1에서는 지시어 제시 분포가 초급 교재와 중·고급 교재에 다르게 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급 교재에서는 지시 대명사와 지시 관형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중·고급 교재에서는 지시 용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는 초급 교재와 중·고급 교재에서 지시어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분석해 볼 것이다. 초급 교재에서는 지시 대명사와 지시 관형사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중·고급 교재에서는 지시 용언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초급 교재에 나타난 상황 지시 제시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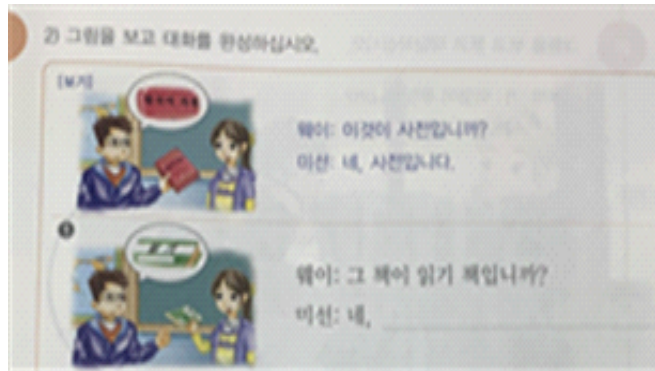
초급 교재에서는 지시 대명사와 지시 관형사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지시 대명사와 지시 관형사를 별도의 문법 항목으로 제시하지 않고 한꺼번에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연세대학교 교재 1급의 경우 34페이지에서는 '이, 그, 저' 문법 항목에서 '이것, 이 볼펜'을 함께 제시하여 가르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초급 교재에 제시된 지시어 제시 방식

위 [그림 1]을 보면 지시관형사와 지시대명사를 따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제시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초급에서는 지시대명사와 지시관형사가 지시용언에 비해 많이 분포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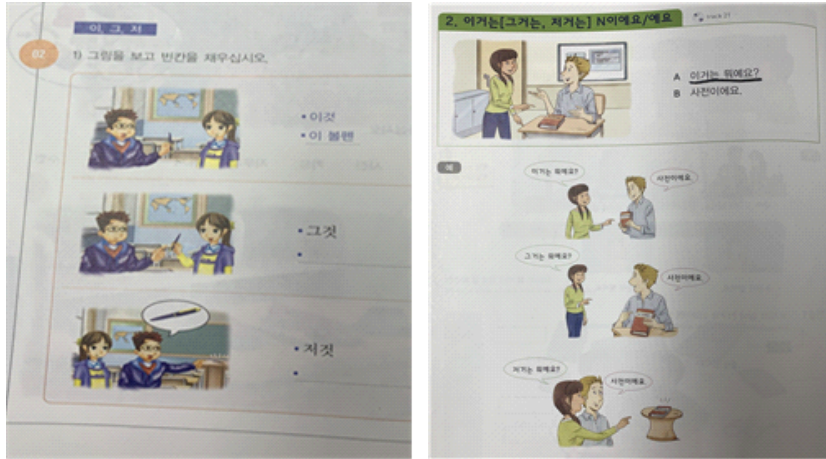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지시대명사와 지시관형사가 함께 제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그림 2] 초급 교재에 제시된 지시어 제시 방식(연습 부분)

연습을 하는 상황에서도 지시대명사와 지시관형사를 모두 연습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초급 교재에서는 지시대명사와 지시관형사가 하나의 문법 항목으로 제시되어 설명되고, 연습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초급 교재에 지시어 설명이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초급 교재에 제시된 지시어 제시 양상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그림 자료를 통한 제시, 두 번째는 그림 자료 제시 없이 설명한 경우이다. 아래 [그림 3]은 이에 대한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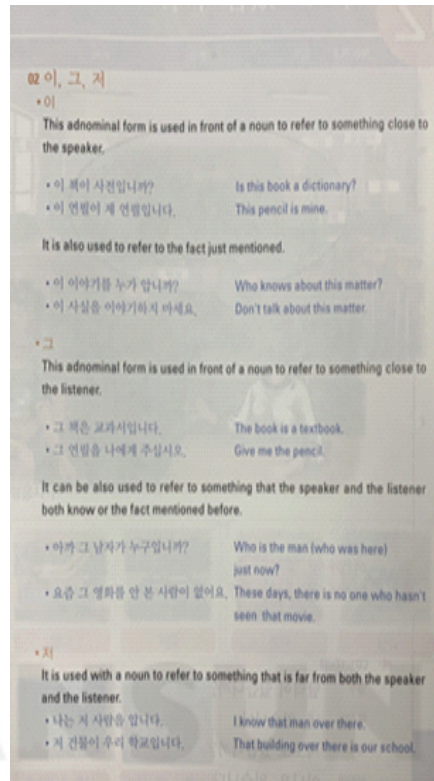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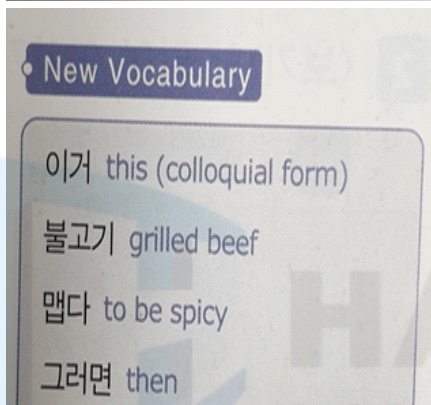
[그림 3] 그림을 통한 지시어 제시 방식

위의 [그림 3]은 서울대학교 교재와 연세대학교 교재에 제시된 지시어 제시 방식이다. 모두 시각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지시어의 경우는 화자와 청자와의 거리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각 자료를 통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국어 초보자들에게 청자와 화자의 거리에 따른 원근감이 잘 표현되지 않아서 ‘이, 그, 저’의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왼쪽에 제시된 〈연세한국어〉의 경우 ‘이것’, ‘그것’의 원근감이 적절하게 제시되지 않아 보인다. 가운데 그림의 경우 남자 화자가 ‘그것’이라고 표현하려는 것을 의도하였으나 남자 화자가 가리키는 손가락 끝과 지시 대상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과 ‘이것’이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시각 자료를 통해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원근감 표현이 아쉽다는 한계가 있다. 오른쪽에 제시되어 있는 〈서울대 한국어〉의 경우에는 연세한국어에 비해 ‘그것’에 대한 원근감은 잘 표현되어 있으나 ‘저것’이 화자와 청자로부터 모두 먼 거리에 해당되는 것인지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것인지 그림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다음은 시각 자료 없이 설명으로만 제시되고 있는 경우이다.



수미 : 린다 씨, 뭐 먹을래요?  
 린다 : 음, 이건 뭐예요?  
 수미 : 불고기예요.  
 린다 : 매워요?  
 수미 : 아니요, 안 매워요. 맛있어요.  
 린다 : 그러면 우리 이거 먹어요.



[그림 4] 단어 제시 또는 설명을 통한 지시어 제시 방식<sup>4)</sup>

위와 같이 시각 자료 없이 설명으로만 이루어질 경우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위의 그림은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교재에 제시된 지시어 제시 방식이다. 시각 자료 없고 단어 제시 및 문법 항목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다. 지시어의 경우는 화자와 청자와의 거리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법이나 어휘 항목과 시각 자료를 같이 제시하면 한국어 학습자들은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법 자료만 나오는데, 한국어 초급자들에게 청자와 화자의 거리에 따른 원근감이 헷갈릴 수도 있어서 ‘이, 그, 저’의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그림 속에 ‘이/그/저’에 대한 시각 자료 없이 설명을 문자로만 설명하고 있고, 단어 제시 정도로 그치고 있다. 이런 경우는

4) 왼쪽 자료는 고려대학교 교재(재미있는 한국어1, 105쪽)이며, 오른쪽 자료는 연세대학교 교재(연세한국어1, 39쪽)에 제시된 내용임을 밝힌다.



한국어 초보자에게 지시어를 그림으로 생생하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지시어에 대한 잘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도록 한국어 교재에서 어휘항목 혹은 문법항목을 설명하면서 시각 자료도 같이 제시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 (2) 중·고급 교재에 나타난 담화 지시 제시 방식

중·고급 교재에서는 지시 용언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지시 용언은 크게 관형형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부사형 어미가 결합하여 사용된 경우가 많아 '이러한, 이렇게'와 같이 관형어와 부사어로 이루어진 것이 어떠한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초급 교재에서는 별도의 문법 항목으로 '이, 그, 저'를 설정하여 자료로 제시한 경우가 많았으나 중·고급 교재에서는 한국어 지시어가 지시용언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이렇게'가 언제 사용되는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나 실제 교재 내에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 상태이다.

이를 통해 지시어를 잘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급별로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급별 자료 제시는 초급과 중·고급으로 나누어 자료를 제시할 수 있고, 제시하는 문법 항목의 성격에 맞추어 초급은 '이것, 그것, 저것'을 중심으로 한 시각자료 위주의 상황 지시 자료를 교육 자료로 제시하고 중·고급은 지시용언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담화 내에서 지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 3.2. 지시어에 대한 학습자 인식

본 절에서는 지시어를 학습자들이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3.1에서 자료 제시는 초급과 중·고급으로 나누어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상황지시와 담화지시에 대한 분석을 통한 학습자 인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상황 지시에 대한 학습자 인식

초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지시 관형사와 지시 대명사를 실제 상황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초급 학습자 대상의 인식 조사는 초급 학습자 14명을 대상으로 하여 지시 관형사와 지시 대명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초급에서 배우는 내용이 주로 화청자의 거리에 따른 상황 지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황 지시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16일에 중국인 초급자 14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초급자들은 지시 관형사와 지시 대명사를 잘 파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설문조사에 항목은 총 네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항목은 그림을 보고 알맞은 지시어를 고르는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은 실제로 다 초급 학습자들은 지시 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 여기, 거기, 저기'에 관해 이해하는 정도를 고찰한 것이다. '이, 그, 저'를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을 방식이 다른데 두 번째 항목은 그림이 없이 대화 정경에 따라 알맞은 지시어를 고르는 것이며 세 번째 항목은 대화 정경에 따라 틀에서 알맞은 지시어를 고르는 것이다. 네 번째 항목은 그림을 보고 대화 속의 밑줄 친 지시어가 가리키는 것을 쓰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시어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그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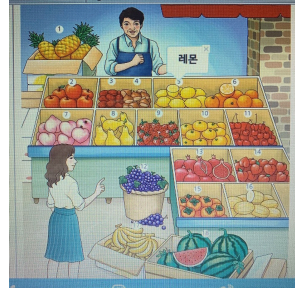
첫 번째 항목에 총 문제 여섯 개가 있고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초급 학습자들은 지시 관형사 '이, 그, 저'와 지시 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에 대한 이해하는 정도를 고찰한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14명 중에 3명이 틀린 답을 선택했는데 틀린 문항은 '그'와 '이'에 관한 지식이다. 대략 5분의 1의 초급자가 '이'와 '그'를 적절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1)

여 자: 사장님, ( ) 레몬(檸檬) 얼마예요?

사장님: ( ) 레몬 6개 10,000원이에요.

① 이 ② 그 ③ 저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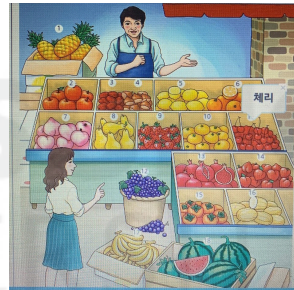
두 번째 문제는 14명 중에 5명의 답이 틀렸다. 첫 번째 문제보다 틀린 초급자 인원수가 더 많다. 여기는 '저'에 대한 지식이다. 대략 3분의 1의 초급자들은 '저'에 대한 아직 이해가 모호하다.

(2)

여 자: 사장님, ( ) 체리(櫻桃) 얼마예요?

사장님: ( ) 체리 한 근 15,000원이에요.

① 이 ② 그 ③ 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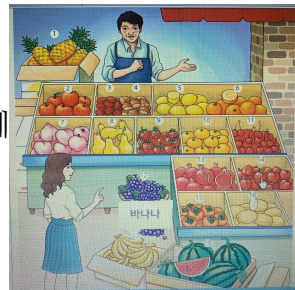
세 번째 문제는 14명 중에 3명의 답이 틀린 것이다. 이것은 첫 번째 문제가 마찬가지로 '이'와 '그'에 대한 지식이고 대략 5분의 1의 초급자가 잘 모른다.

(3)

여 자: 사장님, ( ) 바나나 얼마예요?

사장님: ( ) 바나나 한 묶음(一捆) 5,000원이에요.

① 이 ② 그 ③ 저



네 번째 문제는 14명 중에 3명의 답이 틀렸다. 이것은 '그것'과 '이것'에 대한 것이다. 첫 번째, 세 번째 '이' '그'에 대한 문제와 비슷하다. 여기 도 똑같이 대략 5분의 1의 초급자들은 이해하지 잘 못한 것이다.

(4)

남 자: 사장님, ( )은 뭐예요?

사장님: ( )은 조개(扇贝)예요.

① 이것 ② 그것 ③ 저것



다섯 번째 문제는 14명 중에 6명의 답이 틀린 것이다. 이것은 '저것'에 대한 지식이고 두 번째 '저'에 대한 문제와 비슷하다. 대략 2분의 1의 초급자가 '저것'에 대한 이해가 모호한 것이다.

(5)

남 자: 사장님, ( )은 뭐예요?

사장님: ( )은 고등어(鯖鱼)예요.

① 이것 ② 그것 ③ 저것



여섯 번째 문제는 14명 중에 5명의 답이 틀린 것이다. 이것은 세 번째 문제는 마찬가지로 '이것'과 '그것'에 대한 것이다. 대략 3분의 1의 초급자가 아직 이해하지 못 한다.

(6)

남 자: 사장님, ( )은 뭐예요?

사장님: ( )은 갈치(刀鱼)예요.

① 이것 ② 그것 ③ 저것



두 번째 항목은 14명 중에 4명의 답이 틀린 것이고 대략 3분의 1을 차지한다.

2. 아래의 문제는 그림이 없이 대화 정경에 따라 알맞은 지시어를 고르세요. 下面的题没有图片, 请根据对话情景选择恰当的指示语。

아 들: 엄마, 모자가 어디에 있어요?

엄 마: 너 옆에 있네. ( ) 책상 위를 봐. 모자가 있지?

① 여기 ② 거기 ③ 저기

세 번째 항목은 한국어 초급자 14명 중에 13명의 답이 틀린 것이고 1명만 답이 완전히 정확한 것이다.

3. 대화 정경에 따라 아래의 틀에서 알맞은 지시어를 고르고 (ㄱ) (ㄴ) (ㄷ) (ㄹ)에 써 보세요. 请根据对话情景从下面框框中选出合适的指示语填入(ㄱ) (ㄴ) (ㄷ) (ㄹ)中。

여기, 거기, 저기

A: 오늘 점심 어디에서 먹을까?

(가까운 곳을 가리키며) (ㄱ) 에서 먹을까?

B: 아니, (ㄴ) 는 별로 맛이 없어.

(멀리 있는 식당을 가리키며) (ㄷ) 에서 먹는 것을 어때?

A: 좋아. (ㄹ) 로 가자.

(ㄱ)

(ㄴ)

(ㄷ)

(ㄹ)

네 번째 항목에 14명 중에 6명의 답이 틀렸다. 대략 2분의 1을 차지한다.

4. 그림을 보고 대화 속의 밑줄 친 지시어가 가리키는 것을 써 보세요.  
(중국어말로 써도 됩니다.)

看图并写出对话中画横线的指示语指代的是什么。(用中文写也可以。)

아빠는 아이 2명을 데리고 욕실에서 샤워하고 있  
다. 爸爸带着两个孩子在浴室里洗澡。

아 이: 이거 너무 귀여워요(可爱)!

'이거'의 의미:



첫 번째 항목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어 초급자들은 지시어 '이것, 그것, 저것'에 대한 이해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와 '그'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좀 괜찮은데, '그'와 '저'의 차이점은 아직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그'와 '이것, 그것'은 비슷비슷한 것인데, '이것, 그것'에 대한 이해하기는 여전히 모호하다. '저것'도 마찬가지로 '저것'과 '그것'을 잘 구별되지 않았다. 두 번째 항목에 틀린 원인은 모두 하나인데, '저기'와 '거기'를 헷갈려서 잘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세 번째 항목에 초급자의 답은 매우 다양하다. 가까운 곳을 가리키든지, 아니면 멀리 있는 식당을 가리키든지, 지시어 '여기', '저기', 그리고 '

저기' 모두 제대로 구별되지 않았다. 초급자의 답안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는 두 번째 항목과 마찬가지로 지시어 '거기'와 '저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었다. 네 번째 항목 틀린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문제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서 '이거' 단어를 중국어로 번역했다. 다른 하나는 지시어 '여기, 거기, 저기' 세 가지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아직 잘 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초급자의 대표적인 두 가지 답은 '작은 배' 혹은 '목욕 용품'이라고 적었다.

이 설문조사에 대해 한국어 초급자들은 2명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8명은 보통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이유는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어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그림이 있으면 사물의 위치 관계와 거리를 판단할 수 있고 그림이 없이 대화 정경에 따르면 사물의 위치 관계와 거리를 판단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대화 정경이 있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이 문제들에 대해 자신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신할 수 없다. 네 번째는 지시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모르고 대화 정경을 구별할 수 없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모국어가 아니라서 지시어에 대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없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시어가 한국어의 기초 지식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한국어를 배운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들은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 (2) 담화지시에 대한 학습자 인식

중·고급 학습자의 경우는 읽기 자료에 제시된 지시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므로 담화지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습자 인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의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제시문 중의 하나를 뽑아서 실제 학습자들이 지시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겠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①그 속에서 인간의 삶도 계속해서 변화해가고 있다. 이제 우리의 생활은 과학 기술의 발달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는데, ②이러한 발전을 이끌어 온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호기심과 상상력이었다. 바다에 대한 동경이 없었다면 배는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고, 새처럼 하늘을 나는 꿈을 꾸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비행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③이러한 상상의 힘은 현대로 올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앨빈 토플러가 그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기술적 발전이 한계에 직면하게 될 미래 사회에서는 새로운 가치가 상상력에 의해 창출될 것'이라고 예견한 것처럼 현대 사회는 단순히 기술적 차이만으로 차별성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오늘날은 정보 통신이 발달하여 그런 기술적 차이는 쉽게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창의적인 것이 필요하다. 누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기발한 상상을 했느냐에 따라 생존이 결정되는 사회가 된 것이다. 한마디로 오늘날은 상상력에 의한 적자생존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인 셈이다.

④그렇다면 상상력은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까? 누구는 새로운 발명과 발견이 영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상상력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관찰자가 되어야 하는데, 좋은 관찰자가 된다는 것은 주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심과 애정만 가지고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창의적인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저 책상에 앉아 머리만 쥐어짤다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도 아니다. 창의적인 생각이 가능하려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부단히 주변을 관찰하고 분석해야 한다. ⑤그때 바로 1%의 영감이 찾아오는 것이다.<sup>5)</sup>

5)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6 제7과 읽기 150쪽.



이상 제시문 중에서 '그' '이러한' '그렇다면' '그때' 지시어 4 가지가 나온다. 이 제시문에서 표현하는 의미가 모두 다르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그 속에서 인간의 삶도 계속해서 변화해 가고 있다' 이 문장에서 나오는 '그 속에서'는 '기술의 끊임없는 발전 속'에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발전을 이끌어 온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호기심과 상상력이었다' 중의 나오는 '이러한'이 우리의 생활이랑 과학 기술의 발달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상의 힘은 현대로 올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중에서 '이러한'은 바다에 대한 동경이 없었다면 배는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고, 새처럼 하늘을 나는 꿈을 꾸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비행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처럼 상상력이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상상력은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까? 누구는 새로운 발명과 발견이 영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중의 '그렇다면'이 누가 더 기발한 상상을 했느냐에 따라 생존이 결정되는 사회가 된 상황이라고 말한다. '그때 바로 1%의 영감이 찾아오는 것이다' 중에서 '그때'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부단히 주면을 관찰하고 분석할 때라고 볼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대상으로 중국 유학생들 30명에게 조사하여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시문 속에서 지시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중국 유학생들의 대표적인 생각 몇 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분석하도록 한다.

#### ① 그 속에서

지시어가 의미하는 바는 '기술의 끊임없는 발전 속에서' 정도의 의미가 될 것이다. '그 속에서'에서 '그'가 지시하는 의미를 이해해야 문장의 전체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학습자 응답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 응답1: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 중에서

학습자 응답2: 기술

학습자 응답3: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 속에서

정확하게 응답한 것은 응답3이다. 응답2는 지시어가 지시하는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가 지시하는 대상이 앞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알지 못하는 예라 할 수 있다. 응답1은 의미는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 예라 하겠다.

## ② 이러한

지시어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생활이랑 과학 기술의 발달이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 정도의 의미가 될 것이다. ‘이러한’이 지시하는 의미를 이해해야 문장의 전체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학습자 응답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 응답1: 우리의 생활과 과학 기술의 발달이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학습자 응답2: 생활과 기술의 관계

학습자 응답3: 우리 생활과 과학 기술

정확하게 응답한 것은 응답1이다. 응답2는 지시어가 지시하는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이 지시하는 대상을 지식으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생활과 기술의 어떤 관계를 가리키는지 알지 못하는 예라 할 수 있다. 응답3은 문장 전체가 이해가 안 돼서 정확하지 않는 표현이다.

## ③ 이러한

지시어가 의미하는 바는 ‘바다에 대한 동경이 없었다면 배는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고, 새처럼 하늘을 나는 꿈을 꾸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비행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처럼’ 정도의 의미가 될 것이다. '이러한'이 지시하는 의미를 이해해야 문장의 전체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학습자 응답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 응답1: 바다에 대해 동경이 있어 배를 만들고 새처럼 나는 꿈을 꾸어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상상

학습자 응답2: 상상력

학습자 응답3: 바다, 새 등

비교적 정확하게 응답한 것은 응답1이다. 응답2는 지시어가 지시하는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응답3은 표현이 너무 단편적이라서 지시어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그렇다면

지시어가 의미하는 바는 ‘누가 더 기발한 상상을 했느냐에 따라 생존이 결정되는 사회가 된 상황’ 정도의 의미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이 지시하는 의미를 이해해야 문장의 전체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학습자 응답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 응답1: 오늘날은 상상력에 의한 적자생존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이다

학습자 응답2: 누가 얼마나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기발한 상상을 했느냐에 따라 생존이 결정되는 사회

학습자 응답3: 미래의 동경

정확하게 응답한 것은 사례2이다. 응답1은 지시어가 지시하는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이 지시하는 대상이 앞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알지 못하

는 예라 할 수 있다. 응답3은 ‘미래의 동경’이라고 답하면서 담화에서 지시어가 지칭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그때

지시어가 의미하는 바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부단히 주면을 관찰하고 분석할 때’ 정도의 의미가 될 것이다. ‘그때’가 지시하는 의미를 이해해야 문장의 전체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학습자 응답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 응답1: 창의적인 생각이 가능하려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부단히 주면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을 때

학습자 응답2: 창의적인 생각

학습자 응답3: 어려움 극복

정확하게 응답한 것은 응답1이다. 응답2와 응답3은 지시어가 지시하는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때’가 지시하는 대상이 앞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알아야 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알지 못하는 예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조사 정리를 통해 보면 지시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학생보다는 지시어의 의미를 모호하게 이해하고 있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그동안 학습자들이 지시용언이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연습하지 못하였기에 이해도가 낮게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상황 지시와 담화 지시별로 교육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 Ⅳ.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지시어

### 교육 자료 구성 방안

상술한 것을 종합하면, 한국 지시어는 문장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자체는 교착어에 속한다. 따라서 고립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 지시어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시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타나는 어휘이다. 한국어의 지시어는 화자와 청자에 따라 삼분 체계로 나뉘지만, 중국어의 지시어는 이분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지시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다. 2장의 이론적 배경과 3장의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지시어 분석을 바탕으로 4장에서는 지시어 교육 자료 구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 4.1. 교육 자료 구성 방향

교육 자료 구성 방향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1) 한·중 지시어 차이를 고려하여 '이/그/저'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표 10] 한국어 지시표현 '이/그/저'와 중국어 지시표현 '这/那'

한국어 지시어	중국어 지시어
이	这
그	那
저	

화자와 거리가 가까이 있을 때 한국어 지시어로 '이'를 쓰고 중국어 지시어로 '这'를 쓴다. 화자와 거리가 멀리 있을 때 한국어 지시어로 '그/저'를 사용하고 중국어 지시어로 하나 밖에 없는 '那'를 사용한다. 한국어에서 지시어 '이'는 화자와 거리가 가깝다. 지시어 '그'는 청자와 거리가 가깝고 화자와 거리가 멀다. 지시어 '저'는 화자와 청자 거리가 다 멀다.

① 화자와 거리가 가까이 있을 때:

이 책이 사전입니다.

这本书是字典。

② 청자와 거리가 가깝고 화자와 거리가 멀리 있을 때:

그 책이 사전입니다.

那本书是字典。

③ 화자와 청자 거리가 다 멀리 있을 때:

저 책이 사전입니다.

那本书是字典。

위의 예문 ①번 상황은 '사전'이 화자와 거리가 가까워서 한국어 지시어로 '이'를 쓰고 중국어 지시어로 '这'를 쓴다. 예문 ②번 상황은 '사전'이 청자와 거리가 가깝고 화자와 거리가 멀어서 한국어 지시어로 '그'를 쓰고 중국어 지시어로 '那'를 쓴다. 예문 ③번 상황은 '사전'이 화자와 청자 거리가 다 멀어서 한국어 지시어로 '이'를 사용해야 된다. 중국어 지시어는 2분 체계라서 이런 상황이 없지만 중국어로 번역할 때도 똑같이 '那'를 사용한다. 이러한 원근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지시어가 사용되는 다양한 맥락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해야 한다.

한국어 지시어 '이' '그' '저' 세 가지가 있다. 화자와 거리가 가까이 있을 때 지시어 '이'를 사용한다. 청자와 거리가 가깝고 화자와 거리가 멀리 있을

때 지시어 '그'를 쓴다. 화자와 청자 거리가 다 멀리 있을 때 지시어 '저'를 사용된다. 한국어 지시어는 지시 대명사 이외에 지시 용언이 있는데 이 경우 활용을 통한 '꼴 바꿈'이 일어나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지시어를 이해하기 힘들다. 다 단순한 대명사와 관형사라면 형태 변화가 없는 불변어이므로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이' '그' '저' '이것(이거)' '그것(그거)' '저것(저거)' '이쪽' '그쪽' '저쪽' '여기' '거기' '저기' '이곳' '그곳' '저곳' '이 책' '그 책' '저 책' 등이다. 그렇지만 지시 형용사는 '이러한, 그러한, 저러한' '이런, 그런, 저런'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등도 있다. 지시 형용사가 너무 많고 형태 변화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사용하기가 어렵다. 선택해서 사용할 때는 헷갈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적절하게 지시어가 사용되는 다양한 맥락에 따라서 잘 선택하고 사용해야 된다. 따라서 대명사를 사용하는 상황, 관형사를 사용하는 상황, 용언을 사용하는 상황을 교육 자료로 구성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 3) 한국어 지시어의 활용 고려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표 11] 한국어 지시어의 활용

이	이러하다	이러한
		이런
		이렇게
그	그러하다	그러한
		그런
		그렇게
저	저러하다	저러한
		저런
		저렇게

상황에 따라 관형사가 와야 하는 경우가 있고, 용언이 와야 하는 경우가 있다. 명사를 꾸며주는 상황이라면 앞에 지시관형사 또는 지시용언 와야 하며 대명사를 올 수 없다. 부사, 형용사, 동사를 꾸며주는 상황이라면 지시용언이 부사어로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다.

관형어+명사 상황:

- ① 이런/그런/저런/이러한/그러한/저러한 남자친구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
- ② 이런/그런/저런/이러한/그러한/저러한 음식을 먹으면 몸에 좋다.

부사어+형용사/부사/동사 상황:

- ③ 이렇게/그렇게/저렇게 비싼 요리를 못 사 먹어.
- ④ 왜 이렇게/그렇게/저렇게 빨리 집에 갔어?
- ⑤ 너 이렇게/그렇게/저렇게 하면 창피하지 않아?

①-③에서는 지시대명사가 올 수 없고, 관형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④-⑥ 역시 지시대명사가 올 수 없으며, 관형어로 사용되면 어색하다. 이 문장들에서는 부사어로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게'의 형태가 오는 것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만든다. '비싸다', '빨리', '하다'를 지시어가 꾸며주고 있기 때문이다.

4) 지시어 이해로부터 사용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구성해야 한다.

한국어 지시어를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초급에서만 제시하고 중·고급 문법 항목으로는 제시가 별로 없다. 교재에서 문법과 어휘 위주로 제시되고 있으며 실제 표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습의 제시는 많지 않다. 따라서 한국어 지시어에 관한 한국어 학습자들은 연습할 기회가 적어지고 사용할 기회도 없기 때문에 표현 능력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 5) 지시어 표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료 제시를 다양하게 제시하도록 한다.

이해한 것이 바로 표현 능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학습 자료를 제시할 때 지시어를 선택해 보는 활동, 지시어를 넣어 보는 활동 등을 통해 학습자가 다양한 상황에서 지시어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택 활동은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고 연습이 많아진다. 주관식 활동은 한국어 학습자에게 부담이 높아지고 실제 사용 연습 기회도 많아진다.

- 6) 지시어의 성격에 따라 상황별로 자료를 구성하도록 한다.

앞의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외국인에게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해 초급 교재에서 지시 관형사와 지시 대명사가 많이 나오고 지시용언을 많이 나오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초급과 고급 교재에서 지시용언을 나타나는 빈도가 초급 교재보다 많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급이 높을수록 지시용언이 나타나는 빈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급에서는 주로 상황 지시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 자료를 구성하고, 중, 고급에서는 담화 지시에 초점을 두고 교육 자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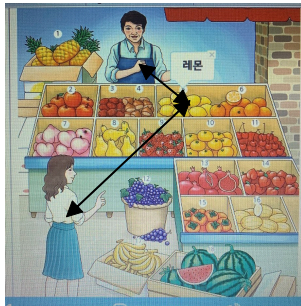
## 4.2. 교육 자료 구성의 실제

본 절에서 자료 제시의 실제는 상황지시와 담화지시에 대한 초급과 중·고급으로 따로 나누어 제시하도록 한다. 앞서 지시어는 초급과 중급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지시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초급에서는 지시대명사와 지시관형사를 중심으로 학습 자료를 제시하고, 중·고급에서는 지시용언을 중심으로 학습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상황지시에 대한 자료 구성의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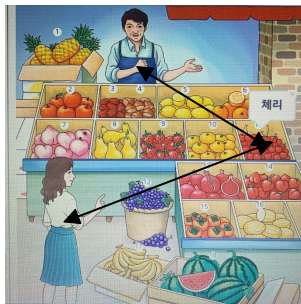
상황지시에 대한 자료 제시의 실제 부분은 그림 자료 활용, 영상 자료 활용, 그리고 번역 활용 방안 세 가지로 고려하여 다양하게 제시하도록 한다.

### ① 그림<sup>6)</sup> 자료 활용



[그림 5] '그'를 지칭하는 상황 지시 시각 자료

[그림 5] 중의 '레몬'은 직원과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지시어 '이'를 쓴다. 그러나 '레몬'은 손님으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지시어 '그'를 써야 된다. 가시적으로 눈에 잘 드러날 수 있게 화살표의 거리감을 통해 '이'가 누구하고 가까울 때 사용되는 것인지를 느낄 수 있게 한다.



[그림 6] '저'를 지칭하는 상황 지시 시각 자료

6) 여기에 나타난 모든 그림의 출처는 누리세종학당의 교육콘텐츠에서 가져왔음을 밝힌다.

[그림 6] 중의 '체리'는 직원과 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지시어 '저'를 사용하고 '체리'는 손님과도 마찬가지로 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지시어 '저'를 사용한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체리'는 직원과 손님 모두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저'가 사용되는 상황을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림 7] '이'를 지칭하는 상황 지시 시각 자료

[그림 7] 중의 '바나나'는 직원과 거리가 멀리 있어서 지시어 '그'를 쓴다. 그러나 '바나나'는 손님과 거리가 가까이 있어서 '이'를 사용해야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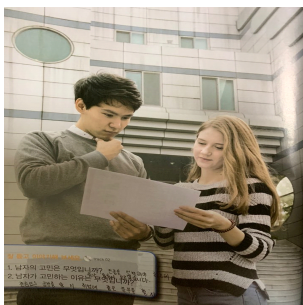
## ② 영상 자료 또는 사진 활용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 중에서 영상에 나타난 단편 사진을 통해 실제적 자료를 제시하도록 한다.



[그림 8] 사진 자료를 활용한 시각 자료1

[그림 8] 속의 '달력'은 여자와 남자 거리가 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이 '달력'을 지시할 때도 한국어 지시어 '이'를 쓰고 여자가 이 '달력'을 지시할 때도 지시어 '이'를 써야 한다.



[그림 9]8) 사진 자료를 활용한 시각 자료2

[그림 9] 속의 '서류'는 여자와 남자 다 거리가 가까워서 남자가 이 '서류'를 지시할 때도 한국어 지시어 '이'를 사용해야 된다. 여자가 이 '서류'를 지시할 때도 한국어 지시어 '이'를 사용된다.



[그림 10]9) 사진 자료를 활용한 시각 자료3

[그림 10] 속의 여자가 먼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남자가 그 여자가 가리키는 곳을 눈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여자와 남자가 다

7)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 3A 제9과 212쪽.

8)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 4A 제1과 24쪽.

9)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 3A 제4과 92쪽.

한국어 지시어 '저'를 써야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지 사진 또는 영상의 자료를 통해서 지시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구성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 ③ 번역 활용 방안

한국어 초급 학습자들은 한국어 지시어에 대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방안을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만약 한국어만 나오면 초급자에게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 전혀 이해하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한국어와 중국어 번역하는 부분을 함께 제시하는 방안이다. 한국어 초급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어 지시표현의 '이, 그, 저'는 중국어 지시표현의 '这, 那'에 해당한다. 그런데 한국어는 '이, 그, 저'의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사용되는데 중국어는 '这, 那' 두 가지의 방법에 의해서 사용된다.

한국어 지시표현의 '이'는 중국어 지시표현의 '这'와 비슷하고, 다 화자와 거리가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한다. 한국어 지시표현의 '그, 저'는 중국어 지시표현의 '那'와 비슷하다.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那' 하나로 표현하는 것과 달리 한국어에서는 '그, 저'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하기 때문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 입장에서는 '그'와 '저'를 구분하기 어렵다.

한국어 지시어 '그'는 청자와 거리가 가깝고 화자와 거리가 멀리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 한국어 지시어 '저'는 화자와 청자 거리가 다 멀리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그'와 '저'를 분리하여 상용할 필요가 있다.

韩国语指示语的'이, 그, 저'相当于中国语指示语的'这, 那'。但是韩国语是根据'이, 그, 저'的三种方法使用, 而中国语是根据'这, 那'的两种方法使用。

韩国语的'이'和中国语的'这'相似, 都是离说话者距离较近的情况下使用。韩国语的'그, 저'和中国语的'那'相似。但是, 在中国语中用一种'那'来表达, 在韩国语中不同的是分成'그'和'저'两种来表达, 正因为这样, 作为中国人韩国语学

习者の立场上来说, '그'和'저'의区分还是很难的。

韩国指示语'그'是离听话者距离近而离说话者距离远的情况下使用的。韩国指示语'저'是离说话者和听话者距离都远的情况下使用的。正因为这样, 根据情况正确的将'그'和'저'区分而且需要常用。

## (2) 담화지시에 대한 자료 구성의 실제

본 논문은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지시표현 자료 구성 방안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한·중 지시어 차이를 고려하여 '이/그/저' 구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는 지시어가 사용되는 다양한 맥락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는 한국어 지시어의 활용 고려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네 번째는 노출은 있으나 실제 표현으로의 연결이 없다. 다섯 번째는 선택 활동과 주관식 활동을 통하여 지시어 표현 능력을 강화한다. 여섯 번째는 등급별로 지시어의 성격을 고려하여 자료를 구성하도록 한다. 이 장은 선택 활동에서 주관식 활동으로 이어지는 순서에 따라 자료 구성의 실재를 제시하도록 한다.

1. ( )에 들어갈 알맞은 지시어를 고르세요.

① 매일 출근에 늦었어요. ( ) 식으로 일하려면 당장 사표 써요.

a. 이런      b. 이렇게

② 넌 방금 친구 만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 ) 빨리 돌아왔니?

a. 이런      b. 이렇게

③ 영진아, 너는 어떤 가방을 좋아해?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고풍스러운 가방을 하나 봤는데, 나는 ( ) 가방이 너무 예쁜 것 같아.

a. 이런      b. 이렇게      c. 그런      d. 그렇게

e. 저런      f. 저렇게

④ 넌 분명히 잘못된 거야.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 ) 어려워?

a. 그런      b. 그렇게

⑤ 이 옷은 디자인이 너무 촌스러워요. ( ) 스타일은 유행하지 않아요.

a. 이러한      b. 이렇게

①-②은 지시어 사용 시 용언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적절히 활용된 지시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①의 경우 명사를 꾸며줄 때 올 수 있는 지시어를 알아야 하며, ②의 경우 부사를 꾸며줄 때 올 수 있는 지시어를 알아야 한다. ④, ⑤도 마찬가지이다. ③의 경우는 성격이 다른데 ③은 ‘이, 그, 저’를 구별할 수 있고, 관형어와 부사어로 사용되는 상황도 이해하고 있어야 적절한 지시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자료에서는 선택지를 통해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지시어가 사용되는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2. ( )에 들어갈 알맞은 지시어를 고르세요.

마이클 씨,

고려 커피숍은 지하철역에서 가까워요.

지하철역 옆에 고려 극장이 있어요. 고려 극장에서 오른쪽으로 100미터  
쯤 오세요. ( )에 슈퍼마켓이 있어요.

고려 커피숍은 슈퍼마켓 2층에 있어요.<sup>10)</sup>

a. 여기      b. 거기      c. 저기

위의 문장에서는 슈퍼마켓은 화자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선 배제한  
게 '여기'이다. 나머지 '거기'와 '저기' 중국인 학습자에게 헷갈릴 수 있다.

10)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1 제5과 읽기 97쪽.

슈퍼마켓이 청자와 가까운지 먼지 확실하지 않아서 '저기'도 고를 수 없다. '거기'는 아주 확실하게 그 위치를 가리키며 한 지점을 가리킨다. 그래서 '거기'는 정답이다. 이런 활동 통해 한국어 지시표현 '이/그/저'를 정확하게 잘 판단할 수 있고 연습도 많이 할 수 있다. 이 자료는 학습자들이 자주 헷갈릴 수 있는 '그, 저'를 판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알맞은 지시어를 고르고 ( )에 넣어 주세요.

이번,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홍보팀의 이 지나입니다.

회사 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항상 저희 부서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 자선 바자회 행사에서 총무부의 도움이 필요하여 ( ) 협조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sup>11)</sup>

위의 문장 중에서 '( ) 자선 바자회 행사에서 총무부의 도움이 필요하여 ( ) 협조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자선 바자회 행사'가 명사라서 '이번'은 정답이고 '보내다'가 동사라서 앞에 관형어가 부적절하며, 부사어 '이렇게'가 정답이 된다. 자료 구성의 실제 앞부분에서 이미 유사한 활동을 선택지로 고르는 활동을 해 보았기 때문에 학습자 입장에서는 언어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지시어 사용에 대한 표현 연습을 늘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11)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4 제5과 읽기 97쪽.



4. (ㄱ)-(ㄴ)에 들어갈 알맞은 지시어를 생각해 보고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고 한국 생활에도 익숙해진 지금, 나는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한다. 어제는 (ㄱ) 일이 있었다. 보통은 운동도 할 겸 계단을 이용하는데 어제는 시간이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탔다. 닫히려는 문을 열고 타서 그런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놀란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내 등 뒤에서 어떤 여고생이 자기 친구에게 (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ㄷ) 외국인 키도 크고 진짜 잘생겼다. 그치?'

다른 때 같으면 조용히 있었을 텐데, 오늘은 (ㄹ) 말을 듣고 뒤를 돌아보며 (ㄴ) 말했다.

'고마워요. 우리나라에서는 (ㄴ)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얼굴이 빨개진 여고생의 얼굴을 보며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sup>12)</sup>

위의 문장 중에 '어제는 (ㄱ) 일이 있었다' 이 말은 '일'이 명사라서 앞에 부사어 안 되고 관형어 '이런' '그런' '저런'을 써야 되는데 당시의 언어 환경에 의하면, (ㄱ)에는 '이런'이 다른 것보다 더 적절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내 등 뒤에서 어떤 여고생이 자기 친구에게 (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말에서는 '말하다'가 동사라서 앞에 관형어 안 되고 부사어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를 사용된다. 그래서 (ㄴ)에는 '이렇게'가 제일 적절하다. '(ㄷ) 외국인 키도 크고 진짜 잘생겼다' 이 말은 '외국인'이 바로 화자 옆에 있고 거리가 가까워서 (ㄷ)에는 '이'가 적절하다. '다른 때 같으면 조용히 있었을 텐데, 오늘은 (ㄹ) 말을 듣고 뒤를 돌아보며 (ㄴ) 말했다'중에서는 '그'로 앞의 말을 가리켜서 (ㄹ)에는 '그'가 적절하고 '말하다'가 동사이기 때문에 부사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여 (ㄴ)에는 부사어 '이렇게'

12)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3 제7과 읽기 127쪽.

'가 제일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ㄷ)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문장 중에서 '말'이 명사이기 때문에 관형어가 오는 것이 적절하며, (ㄷ)에는 관형어 '그런'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주관식 활동 선택지가 없어서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부담이 늘지만 실제처럼 연습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구성하여 연습의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V. 결 론

지시어는 언어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고 한국어와 중국어에 모두 있다. 지시어휘는 그 수가 많지 않지만, 사용 빈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한·중 지시어는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체계적인 구조 측면에서 보면 중국어 지시어는 2분 체계이고 한국어 지시어는 3분 체계이다. 한국어 지시어에는 '이' '그' '저' 세 가지가 있다. 한국어에서는 화자와 가까운 거리가 있을 때 지시어 '이'를 사용한다. 청자와 거리가 가깝고 화자와 거리가 멀리 있을 때 지시어 '그'를 쓴다. 화자와 청자 거리가 다 멀리 있을 때 지시어 '저'를 사용된다. 그렇지만 중국어 지시어 '这' '那' 두 가지만 있다. 화자와 가까운 거리가 있을 때 지시어 '这'를 쓰고 화자와 거리가 멀리 있을 때 지시어 '那'를 사용한다. 한국어 지시어는 중국어 지시어보다 하나의 체계가 더 많다. 이런 차이로 한·중 지시어는 일대일 대응되지 않아 의미 혼란을 겪게 되는 복잡한 관계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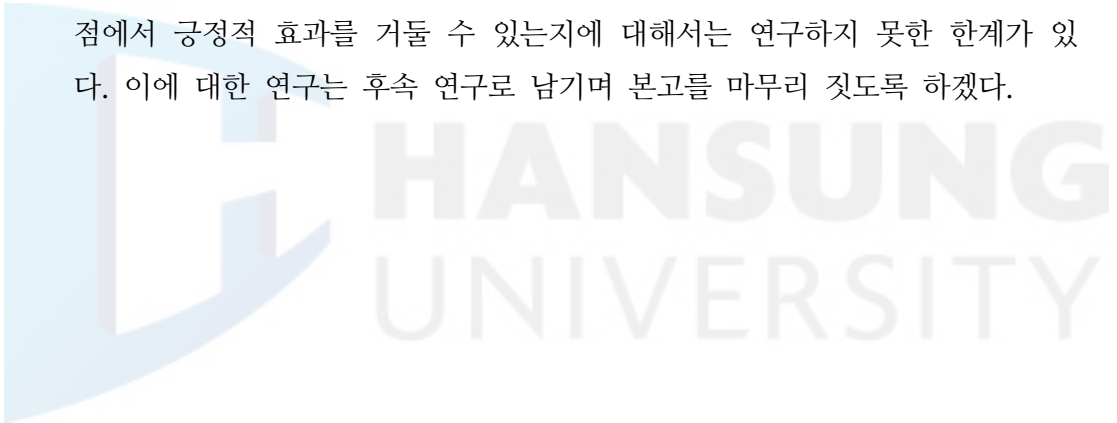
그리고 한국어 지시어는 지시 대명사 이외에 지시 형용사가 있는데 이 경우 활용을 통한 '꼴 바꿈'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국어 지시어와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연구의 기초위에 본 논문은 한·중 지시어를 대상으로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그것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필요성, 연구 범위 및 방법을 논술하였다. 그리고 지시어와 지시어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는 지시어에 대한 연구와 지시어 교육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지시어의 이론적 배경을 살피고 지시어에 대한 정의와 분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시어를 한국어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요소를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한국어 교재 1급부터 6급까지에서 어떻게 지시어가 제시되고 있는지 빈도와 제시 양식을 살펴보고, 학습자 인식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지시어 교육 자료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주로 교육 자료 구성 방

향과 자료 구성의 실제 이 두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지시어 교육 자료를 구성하여 교육 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자료를 구성할 때 첫 번째로 한·중 지시어 차이를 고려하여 '이/그/저' 구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두 번째로 지시어가 사용되는 다양한 맥락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세 번째로 한국어 지시어의 활용 고려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네 번째로 표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다섯 번째는 상황 지시와 담화 지시를 수준에 맞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자료 구성의 방향을 바탕으로 한 자료 구성의 실재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실제 학습자들이 이 교육 자료로 학습하여 어떤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후속 연구로 남기며 본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 김일웅. (1982). "우리말 대용어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일웅. (1982). 지시의 분류와 지시사 '이, 그, 저'의 쓰임. 『한글』, 178, 53-88쪽
- 민경모. (2008). "한국어 지시사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선희. (2007).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지시어 의미 기능 습득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선희. (2008). 학습자의 언어 인식 조성을 통한 한국어 지시어 교수 방안. 『외국어교육』, Vol.15 No.3, 359-386쪽.
- 박영환. (2007). 한국어 지시어 교육 연구. 『언어연구』, Vol.23 No.3, 357-372쪽.
- 서경희, 홍종화. (1999). '이게 바로 그거야': 원근지시에서 태도지시로. 『담화와 인지』, 6, 1-22쪽
- 안광미. (2015). "중국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지시어 교수방안 연구: 중국어 표현과의 대조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용준. (2018). 영어와 한국어의 지시표현 사용에 대한 연구. 『언어과학연구』, 85, 191-209쪽.
- 오경숙. (1997). "현대국어 지시어 '이, 그, 저'의 기능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선경. (1996). "지시어 '이, 그, 저'에 대한 관한 연구: 담화상에서의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왕학웅. (2014).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지시어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기갑. (1994). '그러하-'의 지시와 대용, 그리고 그 역사. 『언어』, 19, 455-488쪽

- 이승후. (1991). "지시어 '이, 그, 저'의 의미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경희. (1980). 지시어 '이, 그, 저'의 의미 분석. 『어학연구』, 2, 167-184쪽.
- 장목비. (2012). "한국어와 중국어의 지시표현 대조 연구: 사물, 처소, 시간, 상태 지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 신. (201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지시어 교육 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채숙희. (2018). 한국어교재의 지시어 분석: 지시관형사와 지시대명사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79, 97-133쪽.
- 황선영. (2019). '이', '그'의 문맥적 지시 기능 사용 연구: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겨레어문학』, 62, 305-326쪽.
- Zhao, Xiao-Yan. (2013).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지시어 교육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 국외문헌

- 曹秀玲. (2000). 『汉语“这/那”不对称性的语篇考察』. 汉语学习. P7-12.
- 胡裕树. (1991). 『试论语法研究的三个方面』. 语言教学与研究. 第二期.
- 黄伯荣, 廖序东(2001). 『《现代汉语》(下册)』. P27.
- 蒋 华. (2004). "现代汉语“这/那”类指示代词的多维度考察". 湖南师范大学. 博士学位论文.
- 姜美子. (2003). "朝鲜语“이/그/저”和汉语“这/那”的对比". 延边大学. 博士学位论文.
- 李晓燕. (2009). "韩汉指示代词语篇功能对比". 延边大学. 硕士学位论文.
- 梁敬美. (2002). "“这-”“那-”的语用与用法功能研究". 中国社会科学院研究生院. 博士学位论文.
- 吕叔湘. (1985). 『现代汉语八百词』. 北京商务印书馆.

- 吕叔湘. (1985). 『近代汉语指代词』. 上海学林出版社.
- 吕叔湘. (1990). 『中国文法要略』. 北京商务印书馆.
- 宋晓辉. (2006). "汉韩指示代词对比研究". 对外经贸大学. 硕士学位论文.
- 王 力. (1985). 『《中国现代语法》』. P223.
- 朱德熙. (1982). 『中国语法丛书』. 语言教学与研究. 第四期.



## 부 록

설문조사

设问调查

안녕하세요.

우선,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 전공 대학원생 유교연입니다.

이번 조사 자료는 석사 졸업논문 연구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연구 이외의 활동에는 사용되지 않고 답안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증합니다. 본 조사를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문제가 총 10개 있으므로, 요구에 따라 아래의 문제를 완성해 주세요. 문제를 풀 때 어떤 자료도 참고하지 말고, 파악한 지식에 근거하여 대답하면 됩니다.

您好：

首先，十分感谢您抽出宝贵时间协助本研究。

我是汉城大学一般大学院韩国语文学系韩国语文学专业的硕士研究生刘姣妍。

本次调查资料将只用于硕士论文研究，不用于研究以外的活动，并保证不会泄露答卷者的个人信息。再次感谢您的参与。

这份问卷共有10道题，按照要求完成下面的问题。请在答题时不要参阅任何资料，根据掌握的知识回答即可。

이름(姓名):

연락처/위챗(联系方式/微信):



1. 그림<sup>13)</sup>을 보고 알맞은 지시어를 고르세요. 看图选择恰当的指示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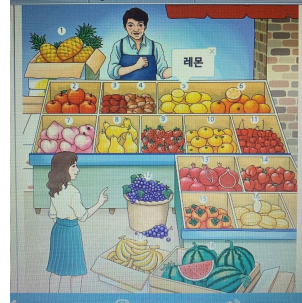
여자가 과일 가게에 와서 사장님이랑 대화이다. 女孩来到水果店，和老板的对话。

(1)

여 자: 사장님, ( ) 레몬(柠檬) 얼마예요?

사장님: ( ) 레몬 6개 10,000원이에요.

① 이 ② 그 ③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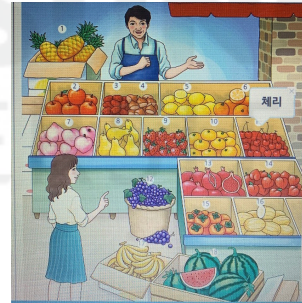


(2)

여 자: 사장님, ( ) 체리(櫻桃) 얼마예요?

사장님: ( ) 체리 한 근 15,000원이에요.

① 이 ② 그 ③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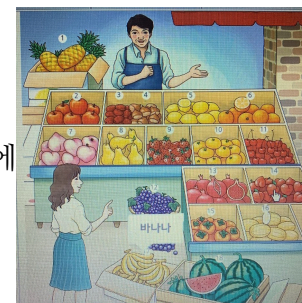


(3)

여 자: 사장님, ( ) 바나나 얼마예요?

사장님: ( ) 바나나 한 묶음(一捆) 5,000원이에요.

① 이 ② 그 ③ 저



남자가 해산물 시장에 와서 사장님이랑 대화이다. 男生来到海鲜市场，  
和老板的对话。

(4)

남 자: 사장님, ( )은 뭐예요?

사장님: ( )은 조개(扇贝)예요.

① 이것 ② 그것 ③ 저것



(5)

남 자: 사장님, ( )은 뭐예요?

사장님: ( )은 고등어(鯖鱼)예요.

① 이것 ② 그것 ③ 저것



(6)

남 자: 사장님, ( )은 뭐예요?

사장님: ( )은 갈치(刀鱼)예요.

① 이것 ② 그것 ③ 저것



2. 아래의 문제는 그림이 없이 대화 정경에 따라 알맞은 지시어를 고르세요. 下面的题没有图片, 请根据对话情景选择恰当的指示语。

아 들: 엄마, 모자가 어디에 있어요?

엄 마: 너 옆에 있네. ( ) 책상 위를 봐. 모자가 있지?

① 여기 ② 거기 ③ 저기

3. 대화 정경에 따라 아래의 틀에서 알맞은 지시어를 고르고 (ㄱ) (ㄴ) (ㄷ) (ㄹ)에 써 보세요. 请根据对话情景从下面框框中选出合适的指示语填入(ㄱ) (ㄴ) (ㄷ) (ㄹ)中。

여기, 거기, 저기

A: 오늘 점심 어디에서 먹을까?

(가까운 곳을 가리키며) (ㄱ) 에서 먹을까?

B: 아니, (ㄴ) 는 별로 맛이 없어.

(멀리 있는 식당을 가리키며) (ㄷ) 에서 먹는 것을 어때?

A: 좋아. (ㄹ) 로 가자.

(ㄱ) (ㄴ) (ㄷ) (ㄹ)

4. 그림을 보고 대화 속의 밑줄 친 지시어가 가리키는 것을 써 보세요. (중국말로 써도 됩니다.)

看图并写出对话中画横线的指示语指代的是什么。(用中文写也可以。)

아빠는 아이 2명을 데리고 욕실에서 샤워하고 있다. 爸爸带着两个孩子在浴室里洗澡。

아 이: 이거 너무 귀여워요(可爱)!

'이거'의 의미:



이 설문조사를 완성하고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어렵지 않다, 보통, 어렵다 중의 하나를 고르고 이유도 같이 써 주세요. (중국어말로 써도 됩니다.) 答完这份设问调查, 您觉得难吗? 请选出不难, 一般, 或者难其中一个, 并写出理由。(用中文写也可以。)

① 어렵지 않다(不难)

이유(理由):

② 보통(一般)

이유(理由):

③ 어렵다(难)

이유(理由):

## 中文摘要

### 为了中国人学习者的韩中指示语教育资料指示方案

刘姣妍

韩国语文学科

韩国语文学

研究生院

汉城大学

指示语是日常生活中经常出现的词汇，韩国语和中国语都有指示语。但是对于母语是中国语的韩国语学习者来说想要很好的理解或者掌握韩国语指示语绝非是一件容易的事。本论文是针对中国人韩国语学习者对韩中指示语分别进行了详细的分析研究，并提出了有效的指示语教育资料方案。目的是让中国人学习者更好地学习和掌握韩国语指示语这方面的内容，希望本论文能为中国人学习者在学习韩国语指示语方面能给予较大的帮助。

本论文的具体内容为，第一章对本研究的目的，必要性，研究范围和研究方法进行了论述。还有对指示语和指示语教育这两个方面做了先行研究。第二章是本论文的理论背景。对韩中指示语的定义和分类进行了整理分析，以及韩国语学习者在学习韩国语指示语的时候难解因素进行了分析。第三章对指示语在韩国语教材中出现频度和出现方式进行了观察，选用了高立大学，首尔大学和延世大学的语言教育院所用的韩国语教材。本章还对中国人学习者关于韩国语指示语方面的认识进行了分析研究。主要采用了设问调查的方式，另外考虑

到韩国语学习者的韩国语能力和水平不同，所以分别对韩国语初级者和韩国语中高级者进行了调查。在初级者为对象的设问调查中，利用的是情况指示这方面来进行，而在中高级者为对象的设问调查中，利用的是谈话指示这方面来进行的。最后针对设问调查的结果详细进行了总结整理分析。第四章是为了中国人韩国语学习者提出的指示语教育资料提出方案。这里主要包括教育资料提出方向和教育资料提出实际两方面。

本人认为，通过以上一系列的分析研究，可以对中国人学习者在学习韩国语指示语方面有较强的帮助。可以帮助中国人学习者更好的学习和掌握韩国语指示语，并正确规范的使用韩国语指示语。



【关键词】指示语，中国人韩国语学习者，教育资料方案，帮助，掌握